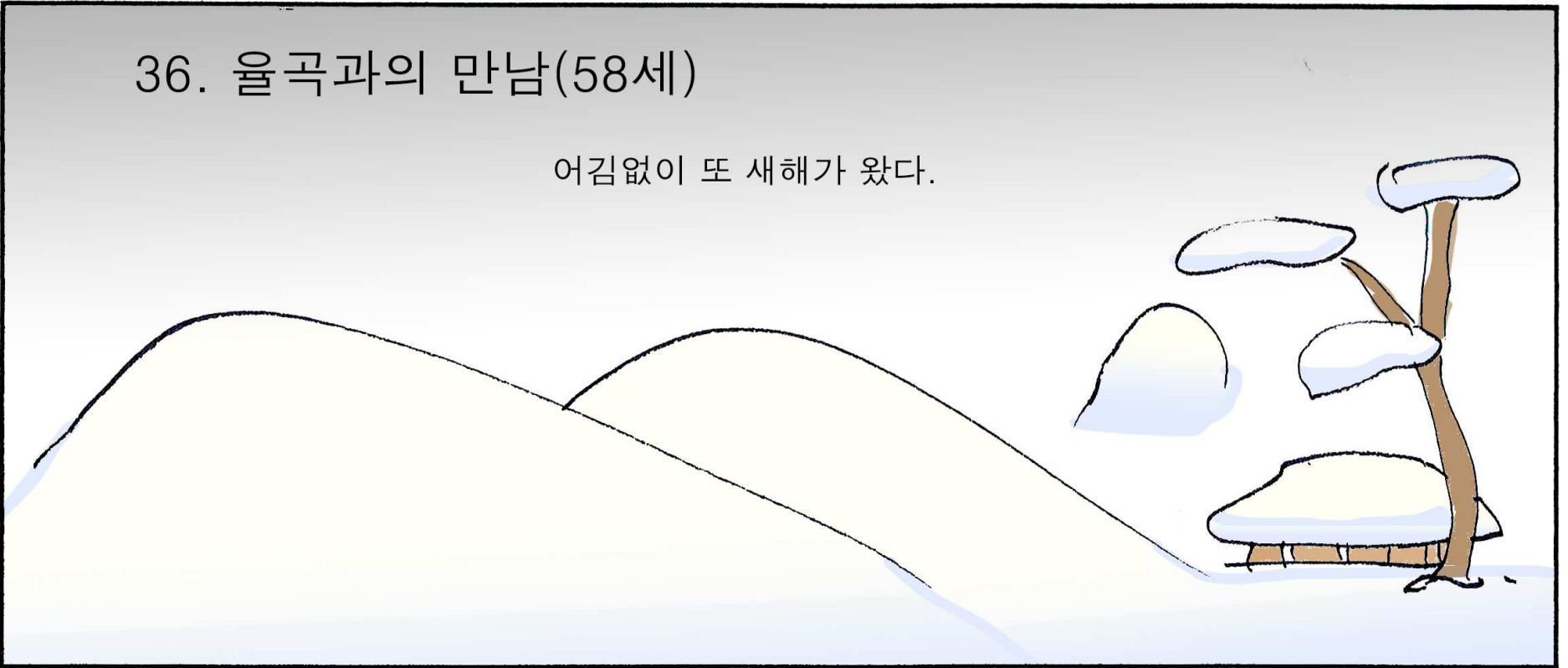


# 36. 율곡과의 만남(5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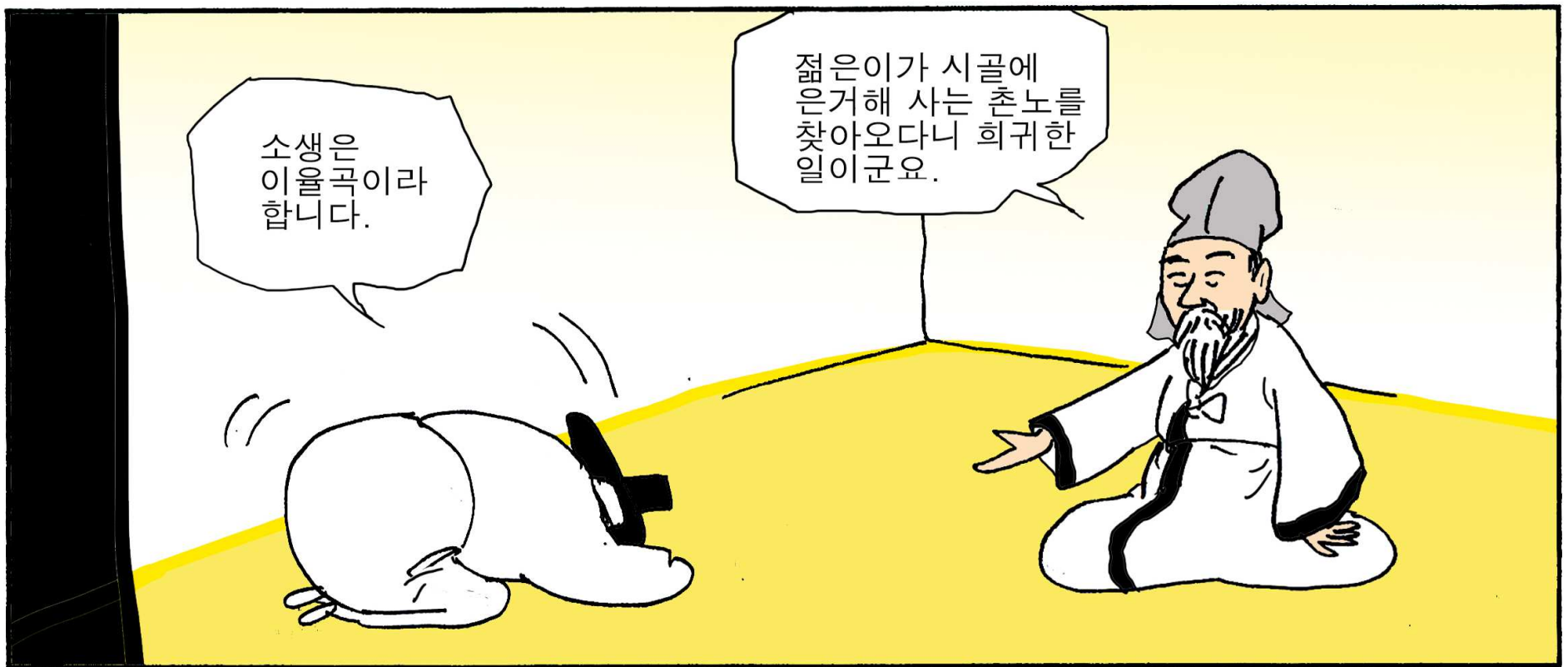
어김없이 또 새해가 왔다.



참동계: 도교의 경전, 건강장수의 비결을 역의 원리로 설명한 책









저는 대나무를  
좋아합니다.  
특히 검은 색의 오죽을  
좋아하지요.

하하하, 대나무도 선비의  
곧은 절개를 뜻하니  
공은 풍류를 아는  
멋쟁이군요.

선생님의 고명을 익히 들어 한 번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마침 지나는  
길에 매화향에 취해 들리게  
되었습니다.



헛된 명성을 들었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2월 어느 날 23살의 청년 율곡이 노학자를  
찾아 계상서당을 찾아온 것이다.

평소에 선생님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터 사람의  
본성과 양심을 갈고 닦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6살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19살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입산수도 했습니다.

그래요? 공부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군요.









그래요? 불경을 통해서 본 세계가 무엇이던가요?

그것을 어찌 말로 설명한단 말입니까?



그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봤지만 어떠하다고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경계로 그것은 마치 내 뒤로 우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 듯했습니다.



하하, 젊은이가 대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으로 언어도단의 경계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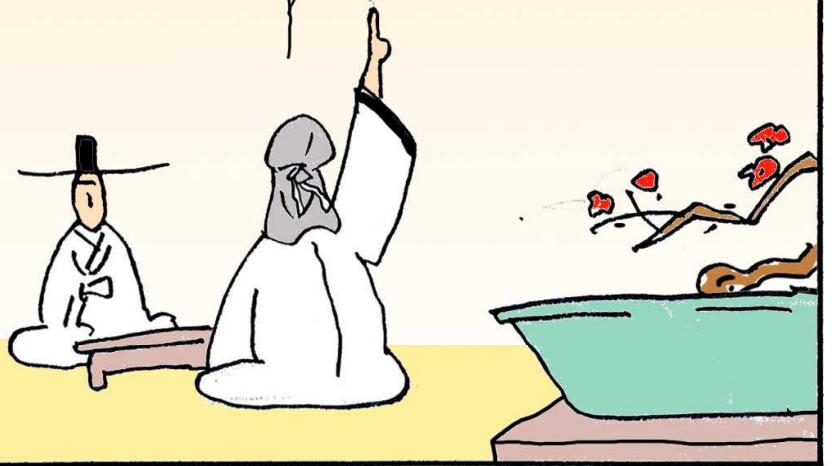
유교이든 불교이든 궁국에 도달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계로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군요.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해도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 답답했는데 선생님과만 말이 통하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도란 높이 올라갈수록 고독하답니다. 범인들과는 알아듣고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어요.



속인들은 말을 해줘도 그 세상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홀로 깨닫고 그 세계에서 홀로 노닐다가 간 도인들이 많았죠.



불교에선 그런 분을 독각승이라 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젊은이의 경계를 알아주는 나를 만났으니 젊은이는 행운인거요.



두 사람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추구하는 길이 같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마음이 통하였다.



을곡 23세



퇴계 58세











당시 율곡이 지어드린 시

공자와 맹자의 학문으로부터 흘러나와  
 무이산 주자에게서 빼어난 봉우리 이루었네  
 살림이라고는 경전 천 권뿐이요  
 사는 집은 두어 칸에 불과하네  
 가슴 속은 비 온 뒤 개인 달같이 환하며  
 담소하면 요동치는 물결 그치게 하네  
 이 몸은 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잠시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溪分洙泗派(계분수사파)  
 峯秀武夷山(봉수무이산)  
 活計經千卷(활계경천권)  
 行藏屋數間(행장옥수간)  
 襟懷開霽月(금회개제월)  
 談笑止狂瀾(담소지광란)  
 小子求聞道(소자구문도)  
 非偷半日閒(비투반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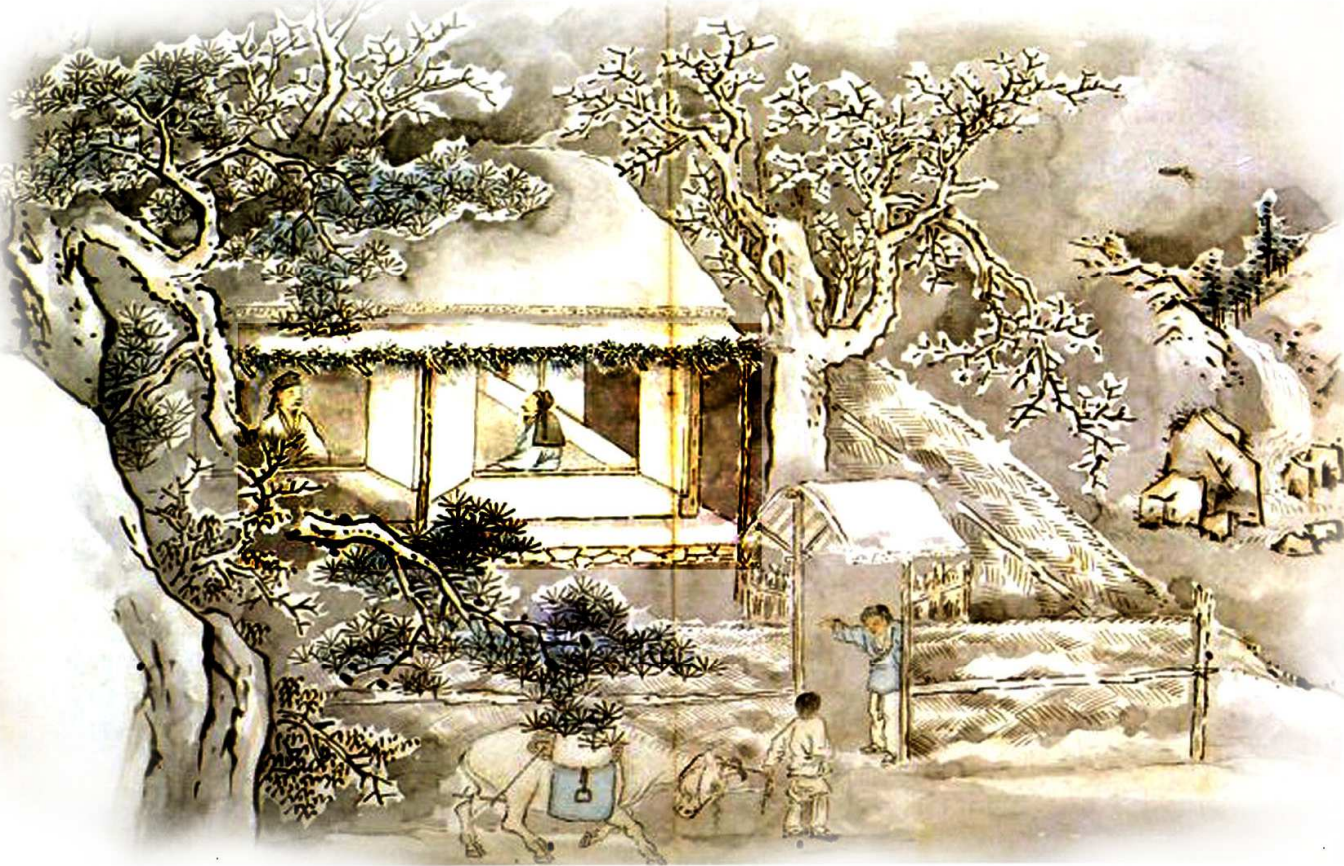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퇴계도 시로써 화답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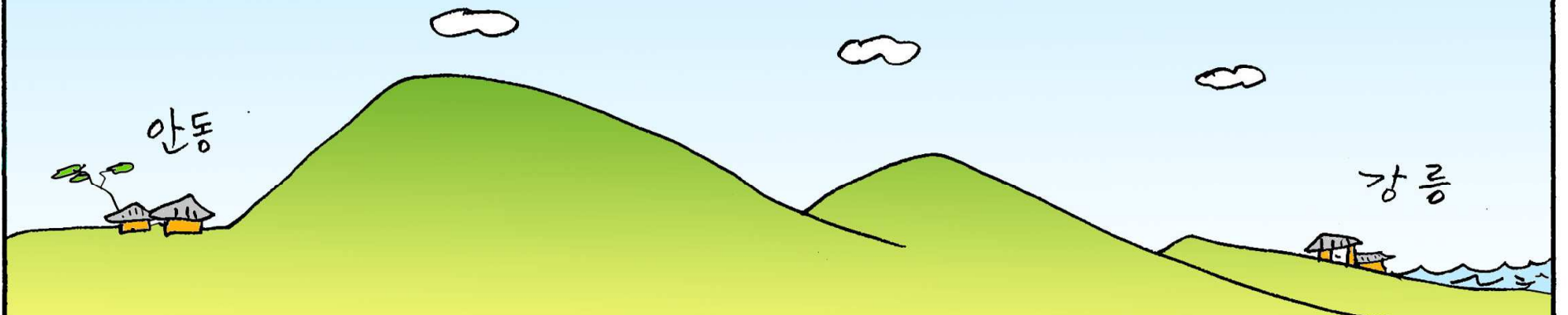
병든 나는 여기 갇혀 봄을 보지도 못했더니  
그대 와서 내 정신 시원케 해주었소  
명성 아래 헛된 선비 없음을 이미 알았으며  
몇 해 전 먼저 찾지 못했음이 못내 부끄러워라  
좋은 곡식은 돌피의 성숙과 아름다움 허용치 않고  
작은 먼지도 거울이 닳여 새롭게 됨을 방해하네  
지나친 시어는 모름지기 거두어내고  
노력하는 공부를 각자 날마다 가까이 하세

病我牢關不見春(병아뢰관불견춘)  
公來披豁醒心神(공래피활성심신)  
已知名下無虛士(이지명하무허사)  
堪愧年前闕敬身(감괴년전궐경신)  
嘉穀莫容稊熟美(가곡막용제숙미)  
纖塵猶害鏡磨新(섬진유해경마신)  
過情詩語須刪去(과정시어수산거)  
努力功夫各日親(노력공부각일친)



\*설중방우  
(이인문)

울곡은 강릉으로 돌아간 뒤로도 편지로써 가르침을 구하였고  
퇴계도 시와 편지로 답하였다.



노년의 퇴계는 젊은 울곡과 대화하며 항상 존대하셨기에  
울곡은 퇴계의 인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